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제주 火山岩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陶磁 花器 研究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産業디자인 學科

工藝디자인 專攻

左 永 仙

2010年 8月

제주 火山岩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陶磁 花器 研究

指導教授 許 敏 子

朴 炫 映

左 永 仙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8月

左 永 仙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이 광 진 印

委 員 박 현 영 印

委 員 오 철 훈 印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2010年 8月

< 목 차 >

Summary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범위	2
II. 화기에 대한 이론적 배경	3
1. 화기의 종류 및 고찰	3
2. 화기의 역사적 배경	5
3. 도자 화기의 조형성 연구	15
III. 제주 화산암 이미지에 관한 고찰	22
1. 제주 화산암의 생성 및 지질적 특성	22
2. 제주 화산암의 종류 및 형태적 특징	24
IV. 작품의 제작 방법 및 설명	28
1. 작품 제작 의도 및 방법	28
2. 작품 설명	30
V. 결론	44
【참고 문헌】	46
【참고 논문】	46

〈 도 목 차 〉

도1. 백색유약을 입힌 장례식용 꽃병	6
도2. 단오 절경 삽화(端午 節慶 插花)	6
도3. 헌천화(獻天花)	6
도4. 중국 꽃꽂이화	6
도5. 삼존형식(三尊形式)	8
도6. 쌍영총 주실 북벽 부부상(雙楹塚 主室 北壁 夫婦像)	8
도7. 신흥사 대웅전 기단면석의 국화무늬 공화	8
도8. 토끼 두꺼비무늬 수막새 기와	8
도9. 해인사 대적광전(大寂光殿) 벽화	9
도10. 수월관음도의 버드나무(헌공화)	9
도11. 자수 사계 분경도(刺繡 四季 盆景圖) 夏景	11
도12. 기명절지도(器皿折枝圖)	11
도13. 병화도(瓶花圖)	11
도14. 병화도(瓶花圖)	11
도15. 책가도(冊架圖)	12
도16. 책가도(冊架圖)	12
도17. 문자도(文字圖)	12
도18. 기로연도(耆老宴圖)의 부분도	12
도19. 도자화기 작품(진현숙작)	14
도20. 도자화기 작품(최정호작)	14
도21. 도자화기 작품	14
도22. 유리화기 설치작품	14
도23. 청자 양각 연당초문매병(靑磁 陽刻 蓮唐草文梅瓶)	16
도24. 청자 과형 화병(靑磁 瓜形 花瓶)	16
도25. 청자 상감 포류수금문정병(靑磁 象嵌 蒲柳水禽文淨瓶)	16
도26. 청자 「순화4년」 명호(靑磁 「淳化四年」 銘壺)	16
도27. 분청사기 상감초화문병(粉靑沙器 象嵌草花紋瓶)	18
도28. 분청사기 박지모란문호(粉靑沙器 剝地牡丹紋壺)	18
도29. 백자 달항아리	18
도30. 청화백자 난초문각병(靑華白磁 蘭草紋角瓶)	18
도31. 청화백자 조어문화병(靑華白磁 釣魚文花瓶)	19

도32. 백자철화 수뉴문병(白磁鐵畫 垂紐紋瓶)	19
도33. 도자화기 작품(태성용작)	20
도34. 도자항아리 작품(곽정태작)	20
도35. 도자수반 작품(김수현작)	20
도36. 도자컴포트 작품(최미애작)	20
도37. 유리를 접목한 도자화기 작품(이혜선작)	21
도38. 도자화기 작품(김순배작)	21
도39. 도자화기 작품(서인성작)	21
도40. 도자화기 작품(도선미작)	21
도41. 파호에호에 용암의 새끼줄구조	25
도42. 꽃자왈지대의 아아(Aa)용암	25
도43. 현무암(보목동 해안)	26
도44. 현무암(조천리 해안)	26
도45. 응회암(고산 수월봉)	26
도46. 응회암(고산 수월봉)	26
도47. 응회암(사계 용머리층)	26
도48. 응회암(송악산 산이수동)	26
도49. 조면암(자연사박물관)	27
도50. 용암수형(자연사박물관)	27
도51. 화산탄(자연사박물관)	27
도52. 주상절리(대포동)	27



< 작품 목 차 >

작품1. 화산암 이미지 I	31
작품2. 화산암 이미지 II	33
작품3. 화산암 이미지 III	35
작품4. 화산암 이미지 IV	37
작품5. 화산암 이미지 V	39
작품6. 화산암 이미지 VI	41
작품7. 화산암 이미지 VII	43



Ceramic Vases Motivated from the Images of Volcanic Rocks Distributed in Jeju Island

Young-seon Jwa

Industrial Arts Design Major
Graduate School of Industry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Min-ja Huh
Hyun-Young Park*

Summary

Human beings share a meaningful sympathy with nature, and get a sense of creative inspiration from naturally available artistic elements.

Moreover, nature provides a sense of emotional balance which effectively aids our recovery and balances our weary minds and bodies from our contemporary barren-hearted industrial society.

In the above context, this study focused primarily on investigating and analyzing Jeju volcanic rocks (distributed around Jeju Island). Essentially these were a series of common decorative items found in our neighbourhoods creating formative embodiments of various volcanic rock forms. These provided both functional and decorative inspiration to make

formative artworks of the flower vase.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this study addressed general theories, historical backgrounds and the influence of vases, whilst examining the geological origins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Jeju volcanic rocks. In particular, it sought to identify different shapes, textures and colours of basalt and tuff, and modify them to perform a formative reconstruction of volcanic rock images.

For such a formative artwork, this study adopted a coarse-grained stone clay with a high strength. It used hand building techniques such as the spinning method, slab method and modelling method to create formative artworks. Next, the artworks were decorated with a harmonious combination of basalt and tuff images by ripping off, carving or scraping the work piece. The glazing was applied differently to maximise the vases aesthetic effect and functionality.

This study found out that our ancestors had a natural simple artistry and created a lot of formative vases embodying flexible lines and plain beauty in a harmony with their religion and daily life. This enabled them to recognize and appreciate their most profound values.

Owing to a series of trials and errors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artwork, this study could detect and improve gaps in vase-making techniques whilst recognizing how to make formative image expressions fit a particular vase.

Jeju volcanic rocks were employed as a good material for making flower vases owing to their various shapes, textures and inherent porosity. They gave a chance to the author hereof to investigate, express and develop his inner formative consciousness.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Jeju volcanic rocks will impart a feeling of natural landscape, a sense of living refreshment to contemporary people who live in a sophisticated social structure. They will also hopefully offer a well balanced decorative value to the field of interior design.

I. 서 론

1. 연구 목적

도자기는 인간이 불을 발견하면서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오래된 용기로써 지난 수 천 년 간에 걸쳐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으며 인간의 의식 성장과 생활 양식의 변천, 사회적 효용성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여 왔다.

거친 흙으로 빚어졌던 오래된 토기로부터 다양하고 세련된 형태의 현대 도예에 이르기까지 도자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결부된 문화적 결정체의 하나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도자가 쓰임새 있는 용기로서 생활에 활력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정서적 미감을 충족시켜 주는 장식적 인테리어 제품으로도 제공되고 있으며,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피곤한 일상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실내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꽃을 꽃아 우리에게 휴식과 안정에 도움을 주는 화기는 그 실용성뿐만 아니라, 실내 인테리어의 일부로서 장식적인 면에서도 그 역할이 크기 때문에 하나의 심미적 조형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본다.

본 연구자가 생활하고 있는 제주는 고유한 향토적인 특성과 천혜의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조형적 자원을 갖고 있다.

특히 제주도 전역에 산재한 돌들은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생성된 암석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풍화 작용과 침식 작용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오묘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암석 표면에 다양한 기공을 지니고 있는 현무암, 화산재가 쌓여서 굳어진 응회암, 암석의 부스러기로 이루어진 화산쇄설층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암석의 형상들도 거품의 모양을 이룬 암석, 주상 절리형 암석, 새끼줄 모양의 암석 등 독특한 조형미를 이루고 있어서 그 예술적 가치도 높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제주 화산암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조형적 특징들을 분석하고 재구성하여, 도자 화기에 접목시켜 표현한다면 제주의 자연을 실내에서 느낄 수 있는 도자 작품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주 화산암에 내재된 미적 요소를 화기 디자인 연구에 응용함으로써 꽃을 장식하는 기능적 측면만이 아니라 실내 공간 안에서 제주의 자연을 느끼고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조형물로서도 그 심미적 가치가 발휘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에서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꽃과 돌이 어우러진 조형적 화기를 제작함으로써 실내 공간 안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인테리어 측면에서 장식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자 화기의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따라서 관련된 문헌과 현장 답사 등을 통하여 제주 화산암의 독특한 형태와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고 탐구하여 현대인들의 정서에 어울릴 수 있는 화기를 제작하고자 한다.

그 방법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가. 도자 화기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화기의 개념 및 우리나라 화기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 고찰한다.
- 나. 제주 화산암의 생성 및 지질적 특성을 이해하고 연구한다.
- 다. 제주 화산암의 다양한 종류, 형태적 특성을 연구하고 현장 답사를 통하여 그 조형적 특징을 탐구하여 화기의 디자인에 응용한다.
- 라. 제작 방법은 말아 올리기 성형기법, 판 성형기법, 속 파기 성형기법을 병행하고, 조각하기, 뜯어내기, 면치기, 찍기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장식한다. 소지는 조형토를 사용하고, 1차 소성은 800℃에서 하고, 1250℃에서 2차 소성을 한다.

II. 화기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화기의 종류 및 고찰

화기는 꽃을 조화롭게 유지하도록 고정시키는 용기로서 꽃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함은 물론 꽃의 생명을 지속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화기는 꽃의 소재나 꽃꽂이를 하는 사람의 취향, 꽃이 놓여질 장소, 주변 환경과 상호 보완하여 다양하게 사용되며 화기 자체만으로도 생활공간에서 인테리어 소품으로서 독자적인 조형물로 관상되거나 보병(寶瓶)¹⁾과 같이 상징적 의미를 갖고 놓여지기도 한다.

화기는 문명의 발달과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옥(玉), 돌(石), 목재, 죽재, 도자재, 금속재, 유리, 플라스틱, 고무, 에보나이트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 지면서 발전하여 왔으며, 꽃 예술 발전이 화기의 창작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화기의 종류는 재질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도 있지만 우선 모양에 따라 크게 분류해 보면 병, 수반, 콤포트, 향아리와 변형 화기로 크게 나누어진다.

병은 입이 좁고 키가 큰 그릇으로, 원통형, 사각형, 목이 긴 것 등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 지나치게 입이 좁고 배가 부른 것이나 반대로 입이 넓고 바닥이 좁은 것 등은 취급하기가 쉽지 않아 아래 위의 넓이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이 적당하다.

수반은 쟁반이나 대접처럼 높이가 낮고 폭이 넓은 화기를 말하며 주로 침봉을 이용하며, 모양은 직사각형, 삼각형, 원형, 타원형, 배형, 접시형, 반달형 등이 있으며 가정에서는 향아리 뚜껑, 대접 등을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콤포트(Compote, 굽 달린 접시)는 수반이나 병보다는 현대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화기로서, 수반과 같이 폭이 넓고 길이가 짧은 용기에 다리가 달린 모양이 일반적이며 형태나 색채의 변형이 많다. 화기 자체가 현대적인 감각을 보이며 오브제(objet)적인 효과를 낼 경우에 많이 이용된다.

향아리(壺)는 병에 비해 입이 넓고 배가 부른 것을 말하며, 물건을 담아 저장하는 용도로 많이 쓰인다. 일반적으로 병 꽃꽂이에는 입이 좁은 병보다는 향아리형의 화기가 많이 이용된다.

변형 화기는 현대에 들어오면서 꽃꽂이의 소재가 다양하고 비사실적 표현이 늘어남에 따라 수반, 병, 콤포트 등의 기존 화기를 크게 변형시켜 새로운 형태로 제작되며

1)보병(寶瓶) : 절에서 쓰이는 ‘꽃병’이나 ‘물병’ 따위를 아름답게 이르는 말

이러한 화기를 통틀어 변형 화기라고 한다. 오브제(objet)적 성격이 강하여 가공 화재나 이질적인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 곳곳이에 이용된다.

그 외에도 바구니, 목기, 유리그릇, 함지박, 향아리 뚜껑, 고목 등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릇들을 화기로 적절하게 활용하기도 한다.



2. 화기의 역사적 배경

화기와 꽃꽂이는 절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꽃꽂이의 발생은 곧 화기의 발생과 연결된다. 고대(古代)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민족이든 꽃을 의식(儀式)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보존되고 있는 자료의 부족으로 명백히 밝히기는 어렵다.

서양에서는 화기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확실한 기록은 없으나 BC400년경 그리스 시대에 ‘백색유약을 입힌 장례식용 화병’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적어도 이 시기에는 의식(儀式)용 화병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도1)

르네상스 시대에는 화병을 책상이나 창가, 거실, 식탁에 놓았음을 회화 작품에서 볼 수 있고, 바로크 시대의 루이 14세가 궁중을 꽃으로 호화롭게 장식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점차적으로 꽃이 장식적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추측할 수 있다.

중국의 꽃꽂이 또한 기원은 확실하지 않으나, 당조(唐朝; 7세기~9세기)에 꽃꽂이가 성행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며, 송조(宋朝; 10세기~13세기)부터는 분재(盆栽)와 조원(造園)이 자주 회화에 나타나고 있다.(도2)

송나라 시대의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에는 선녀가 천화(天花)를 올려 축복하는 내용의 헌천화(獻天花)가 있어 꽃꽂이의 유래를 말해주고 있다.(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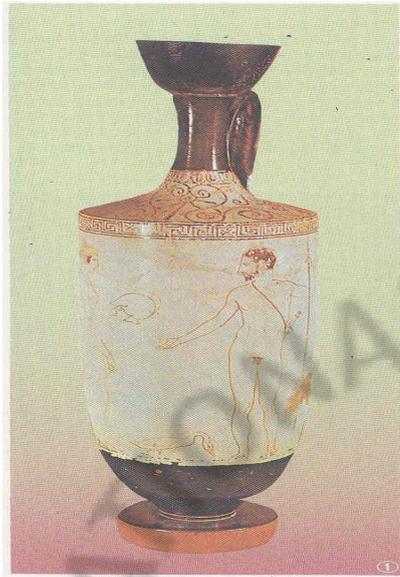
12세기~13세기에는 청동, 도자 등으로 된 수반(水盤)과 기물(器物)에 산석(山石)과 소식물(小植物) 등을 어울려 구성한 것이 있었으며, 중국의 도자기물은 꽃꽂이(도4)의 발달에서 자극을 받아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²⁾

이러한 근거로 추론(推論)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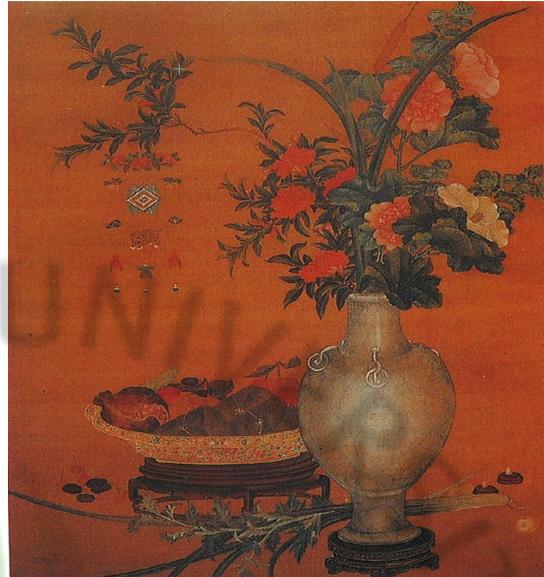
우리나라 꽃꽂이의 역사적 기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고대 샤머니즘에 의한 종교 행사에서 꽃이 사용되었으며 거수거목(巨樹巨木)에 경배하고 꽃물을 옷에 들여 부정을 물리치고 행운을 기원하였던 것으로 보아 장식정보다는 의례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화기도 장식적인 용기로서 보다는 제례 용기로 사용되어졌을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화기의 변천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하수희, 한국 꽃꽂이 역사 자료연구 1집. 하수출판사, 1992, p11



도1. 백색유약을 입힌 장례식용 꽃병
그리스, BC 400년경



도2. 단오 절경 삽화(端午 節慶 插花)
宋代 13C



도3. 헌천화(獻天花) 宋代 13C



도4. 중국 화람(花籃) 宋代 13C초

(1) 삼국시대의 화기

삼국시대 화기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으나 일연(一然)의 삼국유사(三國遺事) 중 헌화가(獻花歌)에서, 또는 고구려의 동굴벽화, 신라와 백제의 토기나 막새기와 등을 볼 때 옛날부터 상하 백성이 꽃을 화기에 꽂고 즐겼음을 알 수 있다.³⁾

삼국시대에는 불교가 널리 전파되어 불교의식이 성행하면서 꽃이 불전공화(佛前供花)로 바쳐졌으며 그 형식도 삼존형식(三尊形式)으로 이루어졌다.(도5)

삼존형식이란 꽃이 핀 한 가지를 중앙에 직립시키고 반쯤 핀 꽃가지를 좌우에 대칭적으로 배치시키는 꽃꽂이 형식으로서 꽃을 꽂을 수 있는 화기의 형태는 목 부분이 좁아지면서 전부분이 넓게 퍼져야 하는 것이다.

고구려 시대의 화기에 대한 자료는 아주 미약하지만 동굴벽화에서 보여지고 있다. 고구려 벽화의 쌍영총 주실 북벽 부부상(雙楹塚 主室北壁 夫婦像)에서 벽면 상부(上部)에 당초 괴운문(唐草 怪雲文)으로 장식한 창방(昌枋)에 사자 복화반(八字 覆花盤)이 얹혀있고 그 좌우에는 꽃을 꽂은 화병이 그려져 있음을 볼 수 있다.⁴⁾(도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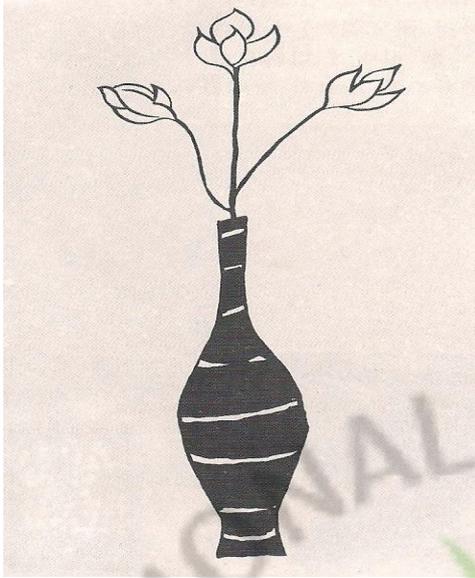
백제시대의 화기에 관한 기록이나 자료도 매우 미미하다. 그러나 중국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어 교류가 활발했을 것으로 보아 당나라에서 성행했던 꽃꽂이가 전파되었으리라 보여지며, 전북 임실군 상월리 사자산 남쪽 기슭에 있는 신흥사 대웅전 기단면석의 국화무늬 공화는 아주 좋은 화기의 자료로 보여진다.(도7)

신라시대에도 화병이나 화기라고 명명된 용기는 찾기 어려우나 수막새 기와의 무늬를 보면 중앙에 전부분이 넓게 벌어진 항아리 형태에 꽃이 꽂혀있고 좌우에 토기와 거북이가 조각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도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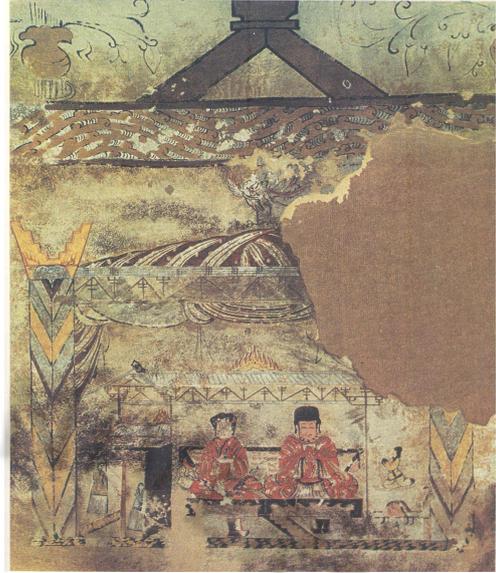
특히 신라시대에는 당나라로부터 불교가 전래되어 불전공화가 많이 이루어 졌을 것으로 보이며 일찍부터 정선된 태토를 사용한 고화도 토기가 만들어졌음을 볼 때 화기의 제작도 왕성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3) 고태수, 한국의 꽃예술사Ⅱ 하수출판사 1993, p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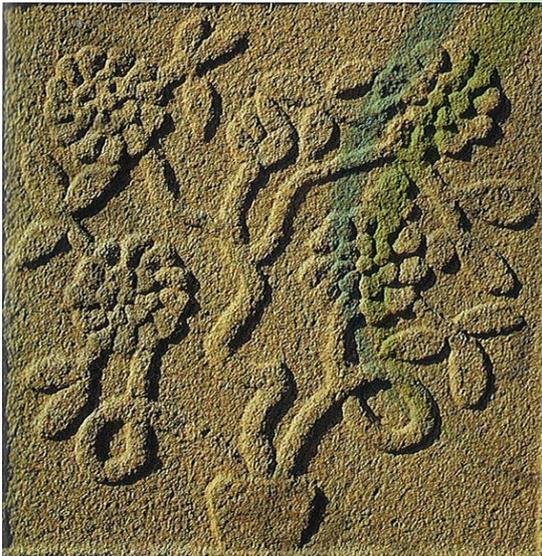
4) 김원용. 벽화(한국미술전집 4), 동화출판공사 1974. p141



도5. 삼존형식(三尊形式)



도6. 쌍영총 주실 북벽 부부상
(雙楹塚 主室 北壁 夫婦像)



도7. 신흥사 대웅전 기단면석의
국화무늬 공화



도8. 토끼 두꺼비무늬 수막새 기와

(2) 고려시대의 화기

고려시대에는 10세기 초에서 14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470년간 송나라와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한 중앙 귀족들이 출현하였고 불교문화가 전성기를 이루었다. 불교문화의 번창은 불전헌공화(佛前獻供花)의 발달로 이어졌으므로 화기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불교에서는 석가 탄생일에 향수 같은 것을 불상에 뿌리는 관불회(灌佛會)라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 때 여러 가지 꽃으로 꾸민 화어당(花御當)이라는 조그마한 집을 짓고 수반(水盤)에는 석가의 동상을 모셨는데 장식된 꽃은 주로 조화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성장한 귀족들이 화어당(花御當)을 본받아 개인적으로 작은 불당을 만들어 석가상을 안치하고 생화를 병에 꽂아 헌화하며 믿음의 무아경(無我境)속에 삶을 영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귀족사회에서는 불교에 따른 꽃꽂이가 성행하였고⁵⁾ 해인사 대적광전 벽화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화기의 형태도 귀족들의 취향으로 다양하게 발전하였다.(도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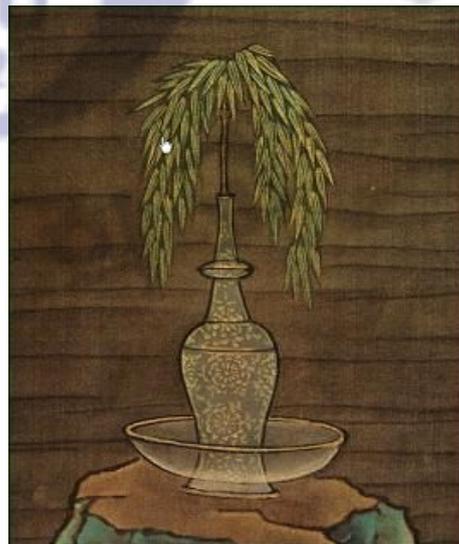
고려시대 이전의 화기는 엄격한 의식용 제기(祭器)로 사용되어졌던 것으로 보이나 고려시대에 와서는 예술성을 지닌 장식품의 성격으로 점차 전환되었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송의 영향을 극복하고 독특한 유연미를 창출한 고려청자가 많이 산출되었으므로 화기 또한 많이 제작되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인종(仁宗,12C)때 송나라 사신이었던 서경(徐兢)이 쓴 고려도경에 의하면 고려청자를 극찬하면서 화호(花壺)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호(壺)란 항아리를 의미하는 말로써 꽃을 꽂았던 항아리를 말함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서 보여지는 화기는 이렇게 화호 외에도 과형병(瓜形瓶), 매병(梅瓶), 정병(淨瓶), 등 다양한 화병들이 있었으며, 특히 정병은 버드나무 가지를 꽂아 불전에 바치는 헌공화(獻供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도10)



도9. 해인사 대적광전(大寂光殿) 벽화



도10. 수월관음도의 버드나무(헌공화)

5) 김현식,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3권. 동아출판사 1988. p557

(3) 조선시대의 화기

15세기 조선시대의 예술 활동은 유교생활에 바탕을 두고 양반들의 의식주 생활에 요구되는 필수품이나 문방구등과 관련하여 특색있는 발달을 보였고, 유교 이념에 따라 서민들의 잠재적인 미의식이 검소하고 질박하게 표현되었으며 소박한 백자가 주류를 이루었고 조선 초기에는 해학적이고 자유분방한 선을 가진 분청사기류가 많이 만들어졌다.

조선시대의 화기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꽃꽂이나 화병에 대해서도 엄격함이 없으며 특별한 기명이 없이 실용성이 강조된 민중적인 조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대부 집안의 대청이나 안방의 사방탁자위에는 백자 화병이 놓였으며 사랑방 문갑 위에도 화분을 놓아 장식했다.

이러한 내용을 고증하는 자료로써 현존하는 자수 작품 중 가장 오래된 자수 사계분경도(刺繡 四季 盆景圖)를 들 수 있으며, 그 시대에 분경(盆景)과 분재(盆栽)가 성행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도11)

조선시대의 화기는 민화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서민들의 소박한 정서가 보여지는 민화는 일상생활에서 무속(巫俗)에 이르기까지 민속적 관습에 따라 각양 각색의 대상을 익살스럽고 대담하게 표현하였으며, 종류도 다양하고, 그 내용이나 발상이 파격적이다. 기명절지도(器皿折枝圖)(도12), 병화도(瓶花圖)(도13, 14), 책가도(冊架圖)⁶⁾(도15, 16), 문자도(文字圖)(도17), 기로연도(耆老宴圖)⁷⁾(도18) 등 민화작품에서 표현되었던 화병을 살펴보면 꽃을 꽂을 수 있는 용기이면 무엇이든 화병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화병이 꽃, 문방구, 길조(吉鳥)등과 함께 그려진 것을 보면 화기의 용도보다는 상징성이 강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책거리라고도 함.

7) 조선시대에 70세 이상의 원로 문신들을 위로하고 예우하기 위해 봄·가을에 정기적으로 국가에서 베푸는 잔치를 기념하여 그린 그림



도11. 자수 사계 분경도
(刺繡 四季 盆景圖 夏景)



도12. 기명절지도(器皿折枝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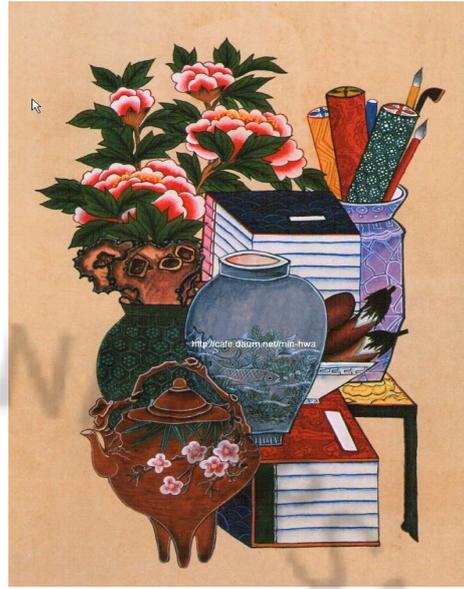
도13. 병화도(瓶花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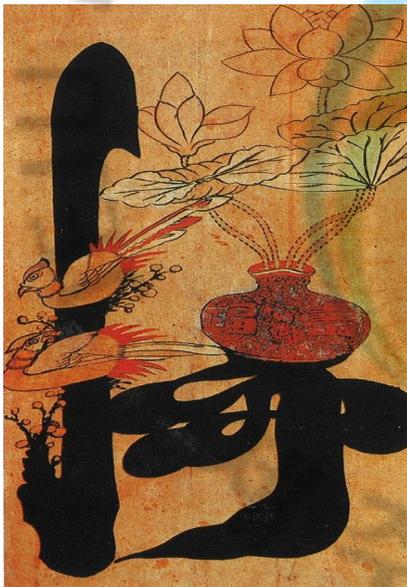
도14. 병화도(瓶花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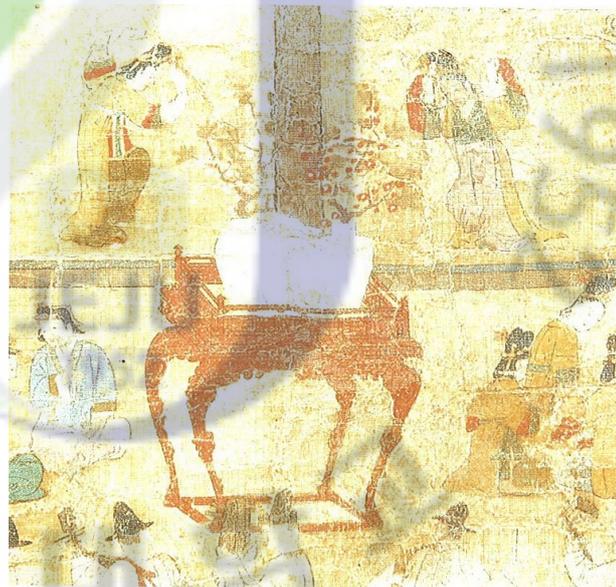
도15. 책가도(冊架圖)



도16. 책가도(冊架圖)



도17. 문자도(文字圖)



도18. 기로연도(耆老宴圖)의 부분도

(4) 현대의 화기

조선시대 이후 일본 강점기 시대의 민족 문화 말살 정책과 왜곡된 일제 사관의 잔재, 6.25 사변 등의 격변하는 정치혼란 속에서 문화, 예술 분야의 활동이 침체되는 암흑기를 맞게 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지속적인 경제 개발과 산업화 정책에 따라 수출 산업 정책이 이루어져 도자 생산업체에서도 식기 생산에 주력하게 되었으며, 생활 정서에 부합하는 화기 생산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꽃꽂이 양식의 도입으로 한국에서도 꽃꽂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점차 경제적인 발전과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한 세계화의 추세로 꽃꽂이가 대중화 되어갔으며, 화기의 제작도 뒤따르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한국의 현대화기는 우리의 전통적인 양식과 현대적인 양식이 혼합되어 독특한 양식으로 변화되었으며, 장식 예술로서의 꽃 작품이 발전해감에 따라 화기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도19)

현대화기는 실용적인 그릇의 본질을 드러내 주는 하나의 오브제(objet)로써 기물의 형태를 암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능에 얽매이지 않고 감각적으로 다양하게 적용하여 물을 담아 꽃을 꽂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용도 이외의 조형적 가치가 담겨 있도록 고안되었다. 또한 현대화기는 작가의 개인적인 예술적 의도를 표현하는 작품으로서, 또는 인테리어 소품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갖게 되었다. (도20)

이처럼 현대화기는 예술의 대상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으며, 도예가의 예술적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에 적합한 대상으로서, 다양한 조형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하고 있다. 또한 꽃이 아닌 타 재료와 오브제(objet)가 도입되는 등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며, 꽃이 지닌 아름다움을 담은 독창적인 예술 형태로 존재하여, 도예가의 창조적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생활 속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매체로서도 자리 잡고 있다.(도21)

오늘날 현대인들이 실내 공간 안에서 긴장된 마음을 풀고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호텔이나 사옥 로비에 대형 꽃꽂이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결혼식이나 파티에서 대형 꽃꽂이가 장식되어짐에 따라 화기들도 조형성을 강조하게 되며 종종 인테리어 목적으로 설치되기도 한다.(도22)

따라서 현대화기는 용도에 대한 개념 자체가 희박하여지고 있으며 꽃을 꽂는다는 소극적 태도가 아닌 조형 예술이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도19. 도자화기 작품(진현숙작)



도20. 도자화기 작품(최정호작)



도21. 도자화기 작품



도22. 유리화기 설치작품

3. 도자 화기의 조형성 연구

인간은 마음에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면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늘 가까이서 접하는 자연을 통하여 아름다운 선을 발견하며 그 선을 창작 활동의 도구로 승화시켜서 마음의 상태를 표출하고 상징화하여 무한한 창조 활동을 한다. 이러한 조형적 사고는 도자화기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예외는 아니다.

우선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왔던 우리 선조들의 생활에서 반영되어 사용되었던 화기의 조형적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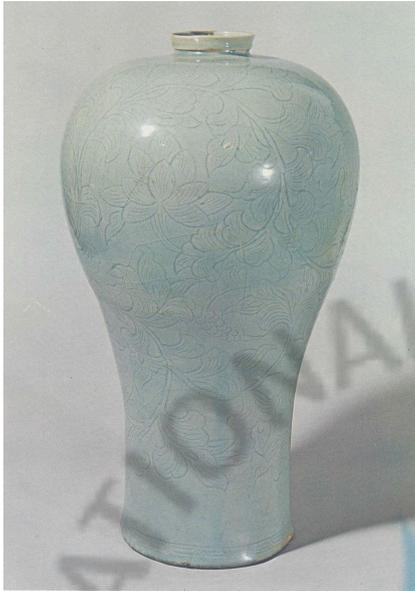
고려시대에는 불교문화의 융성과 청자의 발달로 많은 불전 공화병들이 만들어져 매병(梅瓶), 과형병(瓜形瓶), 정병(淨瓶), 화호(花壺) 등이 사찰에서 사용되어 족음을 알 수 있다.

매병은 술병이라는 설도 있지만 명칭으로 보아 매화를 꽃기 위한 병이었다고도 전해진다. 풍만한 어깨의 양감과 우아하고 섬세한 곡선미를 보여주며, 청자의 아름다운 비색과 어우러져 뛰어난 조형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문 매병 뿐 아니라 음각, 양각, 상감 등 다양한 문양의 매병들이 보여지고 있다.(도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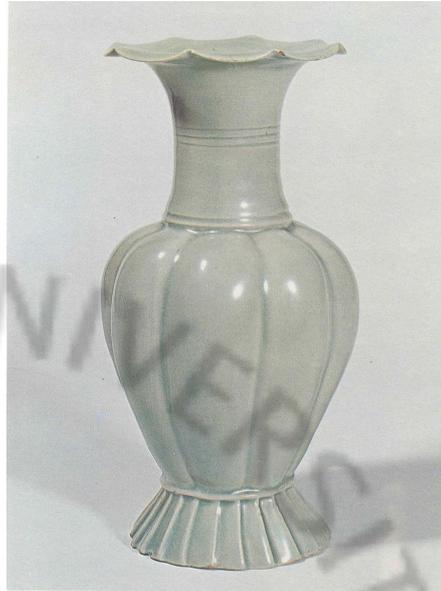
과형병은 조형성과 기능성을 겸비한 화병의 형태로 참외형의 동체와 긴 목, 치마형 굽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목의 중간 부분에서 활짝 핀 나팔꽃형의 형태로 전이 이어지고 있어 비례감이 뛰어나며 단순하면서도 섬세한 장식성이 돋보인다.(도24)

정병(淨瓶)은 몸과 목이 날씬하고 입이 큰 것은 화병으로도 사용하였지만 불전에 놓는 정수를 담는 용구로도 사용되었다.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련된 유물 중의 하나인 청자상감 포류수금문정병(靑磁象嵌 蒲柳水禽文淨瓶)의 양식은 형태가 매우 세련된 상감기법의 초기 작품으로 청아한 담록색의 비색 유약 밑에 백토 상감만으로 새겨진 버드나무와 갈대 그리고 유영하는 한 쌍의 원앙새를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도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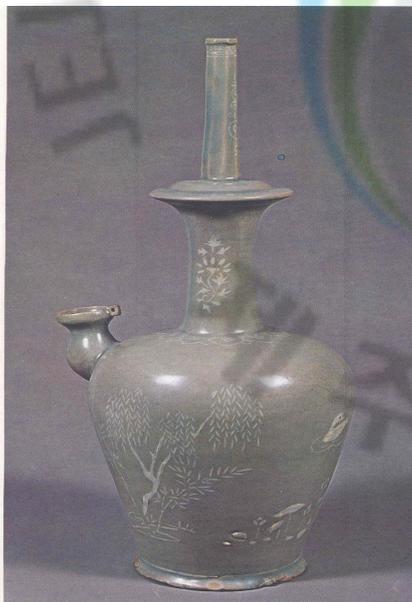
청자 「순화4년」 명호(靑磁 「淳化四年」 銘壺)는 굽 밑에 「순화4년」 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어 그 연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유물이다. 항아리의 유색은 청자로 보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나 담록조의 황회색계 이며 전면에 세밀한 유약의 균열이 있고 태토는 회백색으로 고려시대 초기작품으로 보여진다.(도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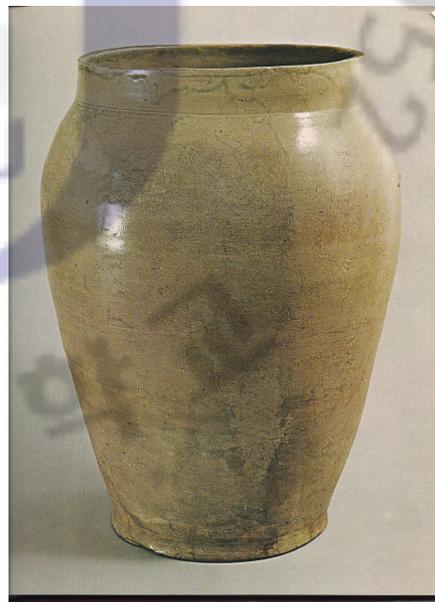
도23. 청자 양각 연당초문매병
(靑磁 陽刻 蓮唐草文梅瓶)



도24. 청자 과형 화병
(靑磁 瓜形 花瓶)



도25. 청자 상감 포류수금문정병
(靑磁 象嵌 蒲柳水禽文淨瓶)



도26. 청자 「순화4년」 명호
(靑磁 「淳化四年」 銘壺)

조선시대에는 명(明)나라의 영향을 받아 전반적으로 백자가 많이 만들어졌다.

조선 초기에는 백자와 함께 해학적이고 자유분방한 선과 형태를 갖춘 분청사기류가 많이 만들어 졌으나, 점차적으로 유교사상과 백색을 선호하는 선비들의 정결한 사상과 맞물려 백자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조선시대 초기의 분청사기 병은 문양이 시원하고 자유스러우며, 신선한 감각으로 격식이나 제약에 얽매임이 없이 소탈한 한국적인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으며, 분청사기 상감초화문병(粉靑沙器 象嵌草花紋瓶)은 면상감의 운치를 한껏 드러낸 작품으로 어깨부분의 흑상감과 몸체의 꽃무늬가 회화적인 맛을 주고 있다.(도27)

분청사기 박지모란문호(粉靑沙器 剝地牡丹紋壺)는 입이 절도 있게 밖으로 퍼져있으며 목으로 이어지는 선은 어깨로 유연하게 이어져 있어 변화없이 잔잔한 곡면을 이루고 있으며 대담하고 운동감 있는 문양 표현은 항아리에 생동감을 더해 주고 있다.(도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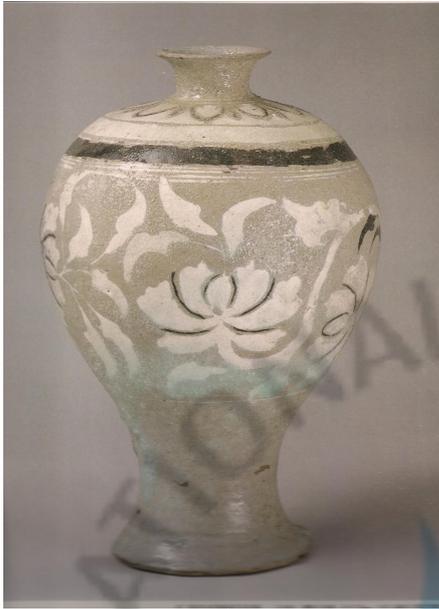
조선의 백자는 소박하고 담백하며 청색, 회백색, 유백색의 색상을 띠고 있으며, 자연의 순리적 형태에 담겨진 질박한 맛은 소박한 서민들의 정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조선 백자 달 항아리는 몸체의 부드럽고 너그러운 곡선이 둥근 맛을 더 느끼게 하고 부분적으로 가느다란 균열이 있으며 번조(燔造)할 때 한쪽이 내려앉아 약간 일그러진 것 같이 보이는 느낌은 선조들의 자연 친화적인 심성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듯 하며, 넉넉하고 담백한 도자 미학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도29)

청화백자 난초문각병(靑華白磁 蘭草紋角瓶)은 부드러운 선을 갖춘 각(角)이 진 병으로 목이 길고 몸체가 완만하게 바닥으로 줄어드는 마름모꼴의 형태이면서 풍만하지 않고 부드러운 곡선을 지니고 있어 안정감을 주고 있다.(도30)

청화백자 조어문화병(靑華白磁 釣魚文花瓶)은 입 부분의 끝을 기품있게 마무리했으며 몸체의 아랫부분에는 선의 변화를 주어 양감을 느끼게 하여 다시 굽으로 좁혀지는 형태로 이 병을 떡메병이라고도 한다.(도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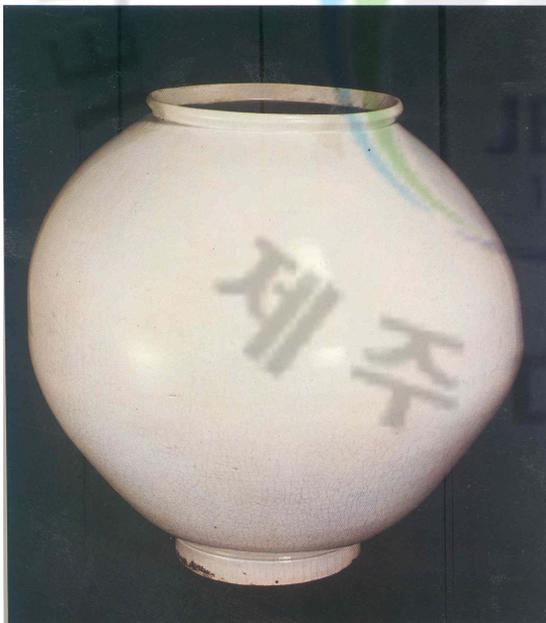
백자철화 수뉴문병(白磁鐵畵 垂紐紋瓶)은 담청의 회백색 백자를 대표할 만한 세련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목에 감아 한 가닥을 아래로 길게 늘어뜨린 철화로 그려진 끈은 유연한 필체와 격 높은 선으로 회화적이고 장식적이다.(도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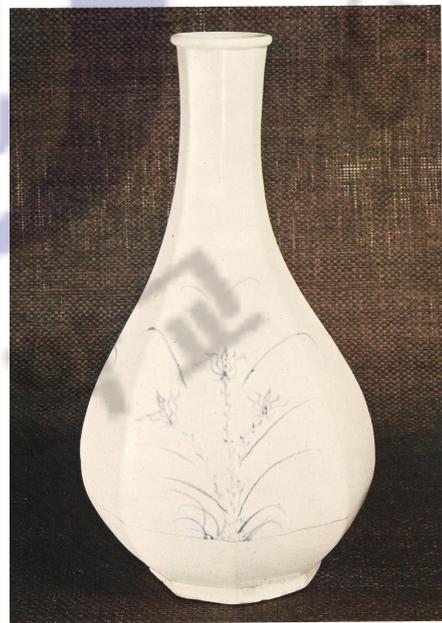
도27. 분청사기 상감초화문병
(粉靑沙器 象嵌草花紋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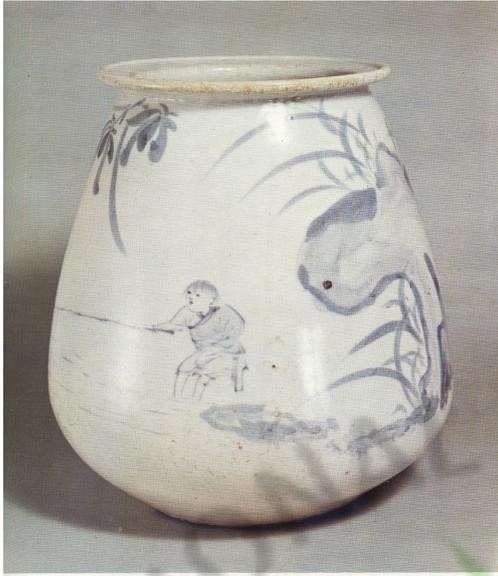
도28. 분청사기 박지모란문호
(粉靑沙器 剝地牡丹紋壺)



도29. 백자 달향아리



도30. 청화백자 난초문각병
(靑華白磁 蘭草紋角瓶)



도31. 청화백자 조어문화병
(靑華白磁釣魚文花瓶)



도32. 백자철화 수뉴문병
(白磁鐵畫垂紐紋瓶)

상기에서 살펴본 선조들의 격조 높은 다양한 유물들을 반추해 볼 때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조형의 원리를 자연으로부터 터득하여 단아하고 질박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인위적인 기교보다는 자연에 순응하는 무한한 여유와 부드러움이 조형적 활동 전반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조형적 바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변형된 화기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그 조형적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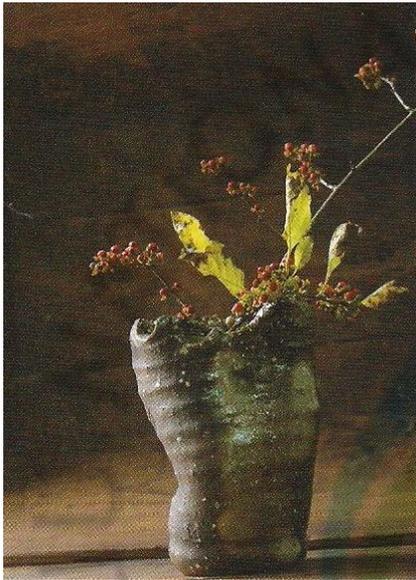
(도33)에서 보여지는 태성룡의 화기 작품은 거친 옹기토로 물레성형한 후에 몸체를 인위적으로 찌그러뜨리고 전을 자연스럽게 뜯어내어 자연의 미감을 살려 꽃과 조화를 이루도록 표현한 화기작품이다. 또한 광경태의 향아리(도34)는 전통적인 향아리를 변형하여 향토적인 질감을 나타냄으로서 질박함과 안정감을 주고 있어 피곤한 심신을 달래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도35)의 수반은 김수현 작품으로 분청사기의 전통적인 박지 기법을 사용하여 한국의 전통적인 미감을 현대에 되살려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어떤 장소에서든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기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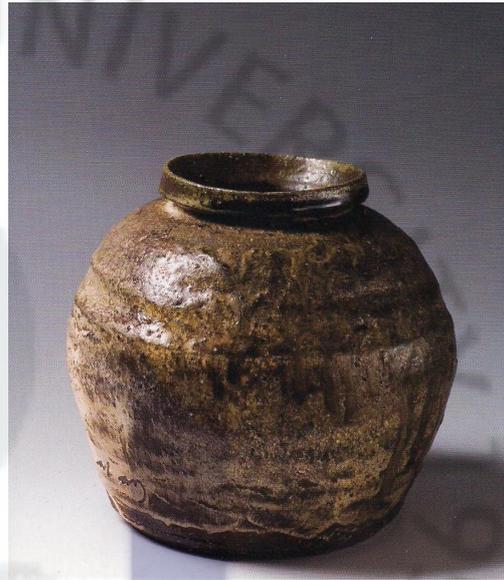
최미애의 도자 콤포트(도36)는 현대적인 형태에 향토적인 느낌이 어우러진 작품으로서 조형성과 장식성을 강조하였으며, (도37)는 도자와 유리를 접목시켜 조형성을 강조한 화기로서 유리의 시원함과 검은색의 받침이 어우러진 현대적인 느낌의 작품이다.

김순배 작품(도38)은 석고형틀에 의하여 성형된 현대적인 감각의 화기로서 여러 개의 화기를 중첩시켜 장식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경쾌하고 신선한 감각을 제공하여 주고 있다.

서인성의 화기(도39)는 조형성을 강조하여 내면의 심상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도선미의 작품(도40)은 현대적인 감각을 살려 화기의 입구를 파격적으로 표현하여 사각의 형태를 더욱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작품이다.



도33. 도자화기 작품(태성용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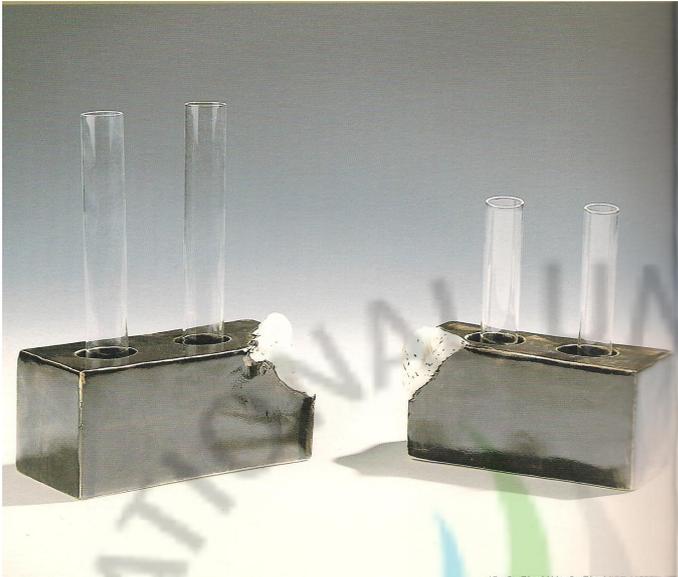
도34. 도자항아리 작품(곽경태작)



도35. 도자수반 작품(김수현작)



도36. 도자콤포트 작품(최미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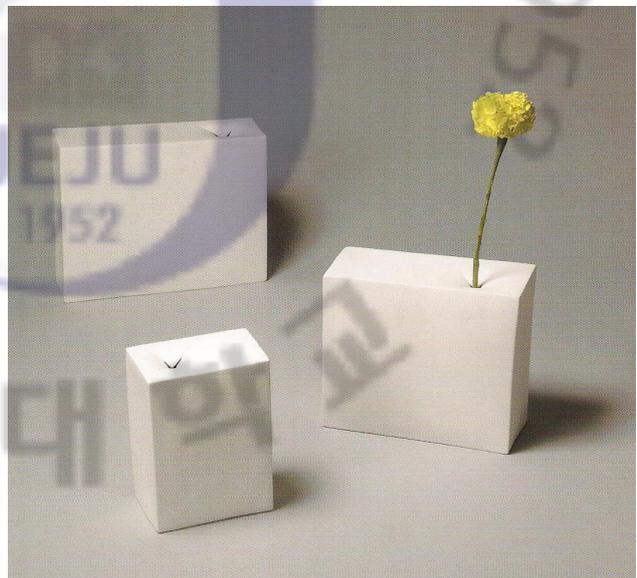
도37. 유리를 접목한 도자화기 작품 (이혜선작)



도38. 도자화기 작품(김순배작)



도39. 도자화기 작품(서인성작)



도40. 도자화기 작품(도선미작)

Ⅲ. 제주 화산암 이미지에 관한 고찰

1. 제주 화산암의 생성 및 지질적 특성

제주도 화산암은 각종 연구에 의하면, 제주도의 형성과정에서 수습회에 달하는 용암류(lava flow)의 분출이 동시 다발적으로 또는 시간을 달리하여 여러 곳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제주도의 화산활동은 신생대 제4기에 연속적인 분화활동에 의해 이루어졌다. 제주도는 약 160~220만년 전에 화산이 분출하여 고제주화산체를 형성하였고, 약 100만년 전후에 서귀포층이 퇴적되었다. 그 이후에 화산활동은 70~80만년전의 산방산 분출기를 시작으로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50만년 전 후에 표선리현무암과 서귀포조면암질 안산암이 분출되어 해안 저지대 지형이 만들어졌다. 그 후 30~10만년전에 한라산 고지대와 백록담 정상부가 형성되었고 최후에는 기생화산 분출로까지 화산활동이 이어져 수백개의 오름을 형성하게 되었다.

제주도의 지질층서는 기존에 조사 연구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있으나 가장 최근에 발표된 한국농촌공사 제주도 본부(2006)에 따라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제주도의 지질층서는 하위층에서부터 상위층까지 기반암, 고제주화산암, 서귀포층, 표선리현무암군, 탐라층, 현무암질 암맥복합체, 한라산현무암군, 백록담 조면암군, 화산성 암설사태층(巖屑砂汰層), 신양리및 고해빈(古海濱)-내만사층(內灣砂層)으로 구분된다.

제주도의 기반암은 화산쇄설암류(火山碎屑岩類)와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수면아래 약 250~300m에 분포하고 있고, 서귀포층은 역질사암(礫質砂岩), 사암(砂岩), 사질이암(砂質泥岩), 이암(泥岩)⁸⁾ 등을 함유한 해양퇴적물로 구성되어 있는 해성층(海成層)이며 해양 생물 화석이 풍부하게 산출된다.

표선리현무암군은 제주도의 북동부와 남서부 지역에 대칭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빌레”라고 부르는 곳으로서 파호에호에(Pahoehoe)유형에 속한다. 표면이 매끄럽고 새끼줄 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표선리현무암은 다공질이며 침상의 장석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알칼리현무암이다.

8) 역암(礫岩; 자갈)-퇴적암 중 크기 2mm이상인 입자가 많은 암석, 사암(砂岩; 모래)-쇄설성 퇴적암으로 주로 1/16mm에서 2mm크기의 입자. 이암(泥岩; 진흙)-지름 1/16mm 이하의 입자로 이루어짐
입자의 크기는 역암>사암>이암

한라산현무암군의 용암들은 한라산의 고지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중산간 지대에서 해안지대에 까지 분포하여 곳자왈을 이루고 있다.

백록담조면암군은 한라산의 정상부 주위에 분포하고 있으며 백록담조면암과 영실조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암석은 담회색 내지 회색을 띠며 기공이 거의 없다.

신양리층은 제주도 동쪽 신양리와 성산일출봉 사이의 해안에 분포하는데, 세력(細礫)~소력(小礫) 역암층(礫岩層)과 조립사암(粗粒砂岩)이 호층(互層)으로 이루어진 내만성(內灣性) 퇴적층이다.



2. 제주 화산암의 종류 및 형태적 특징

제주도는 알칼리성 용암이 연속적으로 분출하여 형성된 순상화산체(楯狀火山體)⁹⁾이다. 한라산 백록담을 중심부로 하여 산기슭에 분포된 오름과 암석, 기암괴석 등, 제주 화산암의 형태는 화산 분출과 용암 흐름 속도, 용암의 냉각 속도, 굳은 장소, 화산활동 당시의 환경요인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제주 화산암은 화산암 전체의 90%가 현무암이다. 제주도의 기반이 되는 이 현무암류는 서귀포와 모슬포를 잇는 구조선상에서 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무암질의 용암류(熔岩流)는 용암류 표면의 특징에 따라 파호에호에(Pahoehoe) 용암(도41)과 아아(Aa)용암(도42)으로 구분된다. 파호에호에(Pahoehoe) 용암은 용암류의 표면이 평평하고 매끄러우며 둥근 모양을 하거나 주름을 보이기도 하고 새끼줄(Ropy) 구조 등을 나타내는 용암류이다.

아아(Aa)용암은 표면이 깨진 용암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거칠고 부서져 부서지며, 마치 자갈 더미를 옮겨다 놓은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제주도에 산재하는 곳자왓 지대는 아아(Aa)용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무암(도43, 44)은 마그마가 급격한 화산활동을 통해 밖으로 분출되어 높은 온도에서 급히 식으면서 굳어졌기 때문에 그 입자가 치밀하게 보인다. 색깔은 검은색, 회흑색으로 많은 기공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기공들은 마그마가 응고할 때 마그마에 녹아있던 가스가 기화되어 빠져나간 흔적이 구멍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현무암은 판자 모양의 암석을 이루기도 하고, 오각이나 육각등 다각의 주상절리(柱狀節理), 새끼줄모양, 거품 형상을 이룬 모양의 표면구조 등으로 발달하여 다양한 형태로 보여진다.

현무암 외에 화산쇄설암, 응회암, 조면암 등이 있는데, 화산쇄설암(火山碎屑岩)은 화산 폭발에 의하여 방출된 화산분출물이 쌓여 굳어진 것으로서 방출할 때 암편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형성되었으며 둥근 공모양, 빵껍질 모양의 화산탄 등 형태적 특징을 갖는 암석들이 있다.

응회암(凝灰岩)(도45, 46, 47, 48)은 화산재, 부석(浮石)¹⁰⁾, 암재(岩滓)¹¹⁾가 고온인 채로 두껍게 퇴적하여 하중(荷重)으로 인한 압축으로 서로 용결하여 형성된 퇴적암

9) 움직임이 큰 용암이 완만하고 넓게 널리 퍼져서 폭발활동에 의한 화산쇄설물은 매우 적은 양밖에 나오지 않아 경사가 완만한 화산을 말한다. 아스피테라고도 하며 멀리서 보면 용암대지처럼 보인다.

10) 부석 : 속돌, 암석중에서 기체가 속에 갇힌 채로 굳은 것들로 물에 뜨는 돌

11) 제주도에서는 흔히 송이라고 불린다.

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구성 물질은 응회사암(凝灰砂岩), 거력(巨礫), 사력(砂礫), 화산쇄설물(火山碎屑物)로 되어 있다.

조면암(도49)은 마그마 지표에서 뿜어 나와 이루어진 암석으로서 규산(SiO_2)성분이 있는 알칼리장석으로 되어 있고 색은 대체로 연한 청록색이거나 회색이며 쉽게 풍화하여 황갈색, 회백색으로 변한다. 반상(斑狀)조직¹²⁾을 가지고 있으며 용암이나 암맥을 이루어 산출된다.

이러한 제주도의 화산암들은 오랜 세월 동안의 풍화 작용과 침식작용으로 인하여 연한석질은 떨어져 나가고 단단한 석질은 남아있어 오묘한 형태를 이루기도 하고 염분에 의하여 다양한 색상으로 변하기도 함으로써 그 형태나 색상이 인위적으로는 형성하기 어려운 자연의미를 연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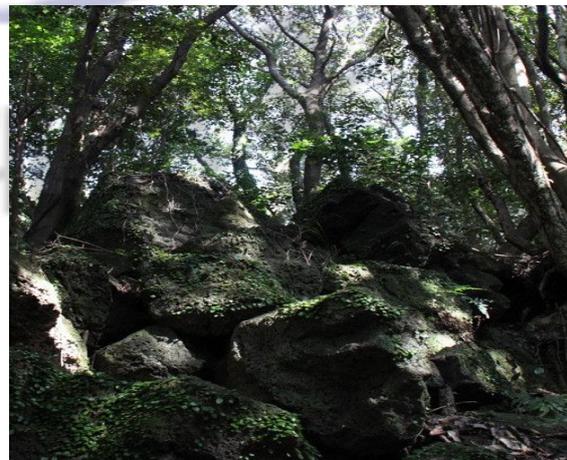
자연적으로 형성된 화산암은 암석표면의 크고 작은 기공 변화로 인해 굴곡을 이루는 재미있는 형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해풍의 침식으로 얼룩얼룩 어지러운 모양의 조직으로 변형된 연리문형상들, 거품과 같은 형상을 이룬 크고 작은 기공의 암석들, 용암이 나무를 감싼 채 굳어지면서 나무결이나 나무줄기의 질감이 나타나는 용암수형(도50) 등도 있으며, 용암이 흐를 때 서서히 식어가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새끼줄 같은 형태로 굳어진 암석, 용암이 분출될 때 공중에서 냉각되면서 생기는 빵껍질 모양이나 고구마 모양 또는 새 모양 거북등껍질 모양 등의 화산탄(도51)도 볼 수 있다.

방출된 용암이 해수(海水)에 닿아 급속히 냉각(冷却)하면서 냉각면에 중직(重直)한 주상절리의 형태의 암석(도52) 또는 관상절리 형태의 암석 등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도41. 파호에호에용암의 새끼줄구조



도42. 꽃자왈지대의 아아(Aa)용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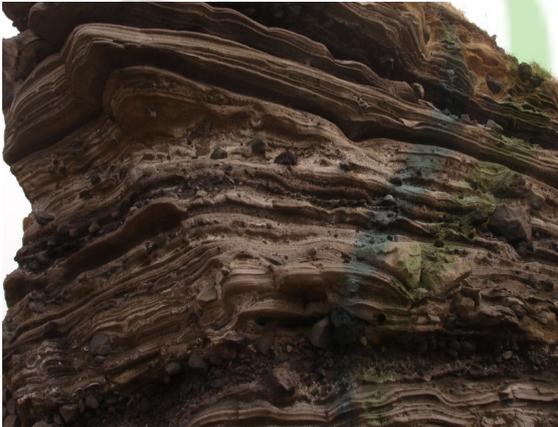
12) 얼룩얼룩 어지러운 모양



도43 . 현무암(보목동 해안)



도44. 현무암(조천리 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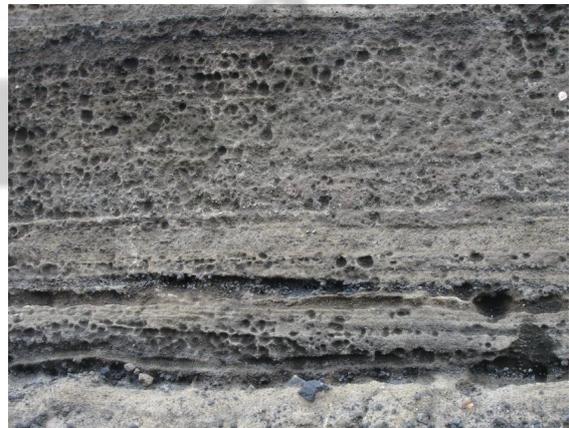
도45. 응회암(고산 수월봉)



도46. 응회암(고산 수월봉)



도47. 응회암(사계 용머리층)



도48. 응회암(송악산 산이수동)



도49. 조면암(자연사박물관)



도50. 용암수형(자연사박물관)



도51. 화산탄(자연사박물관)



도52. 주상절리(대포동)

IV. 작품의 제작방법 및 설명

1. 작품 제작 의도 및 방법

현대의 과학 문명은 인간의 정서를 메마르게 하며 현대인들은 급변하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에 회귀하여 정서적인 안정을 찾고자 하며, 자연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긴장을 이완시켜주는 청량제로서의 역할과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

본 연구자는 천혜의 관광지인 제주에서 생활하면서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광과 독특한 형상들의 화산암들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어 자연이 주는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으며 창작활동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제주의 화산암들은 오랜 세월동안의 풍화작용과 침식 작용으로 그 기공과 형태가 변형되어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를 수 없는 오묘한 형태들을 하고 있다. 또한 그 종류도 다양하여 많은 조형적 영감을 얻는데 많은 보탬이 되고 있으며 조형 작업에도 응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제주 화산암에서 보여 지는 다양한 조형적 특징들을 분석하고 이미지화하여 화기 연구에 접목시킴으로서 조형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동시에 겸할 수 있는 도자 화기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화기 형태의 모티브는 제주 화산암의 대표적 암석인 기공이 많은 현무암과 화산재가 용결하여 퇴적된 응회암을 이미지화하고 단순화하여 화산암에서 볼 수 있는 암석의 느낌을 작품에 접목시켜보고자 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응회암층, 주상절리층, 화산탄, 새끼줄 형상의 암석들이 갖는 조형요소를 집중적인 주제로 디자인 계획을 세웠다.

작품의 색조는 오랜 세월동안 풍화 작용과 침식 작용에 의해 변화된 암석과 퇴색되고 이끼 낀 오묘한 색상들을 작품으로 표현하여 실내 공간 안에서 제주적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암석이 주는 무겁고 딱딱한 느낌을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의 색상으로 표현함으로써 정서적인 안정을 갖는 데 도움을 주는 작품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본 작품의 소지는 작품의 특성상 암석의 거친 느낌과 견고함, 크기, 조형성 등을 고려하여 조형토와 갈색 조형토를 사용하였고, 성형 방법은 판성형 기법, 말아올리기 기법, 속파기 기법을 병행하였다.

현무암과 응회암 등 암석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음각, 양각, 투각, 면치기 등 여러 가지 기법으로 조각하거나 점토를 붙여 나가며 그 질감을 표현함으로써 화산암의 이미지를 극대화시켰다.

작품을 1차 소성한 후에 흑유를 바른 후 스폰지로 자연스럽게 닦아내고 시노유, 백매트유, 코발트매트유, 재유 등을 분무하거나 담금 시유하였다.

형태의 조형성을 충분히 살리기 위하여 작품에 따라 코발트, 크롬, 레드아트 등의 안료를 사용하여 포인트 부분을 강조하여 효과를 주기도 하였다.

소성은 800℃에서 1차 소성을 하였고 1250℃에서 환원염 소성 또는 산화염 소성을 하였으며 작품의 특징에 따라 재시유하여 1250℃에서 3차 소성을 하기도 하였다.



2. 작품 설명

작품1. 화산암 이미지 I

본 작품은 중문 대포동에서 본 주상절리의 이미지를 화기작품에 접목시켜 제작하였다. 주상절리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흐르다가 표면이 냉각되면서 수축이 일어나 갈라져서 기둥모양의 절리가 수직으로 형성된 암석이다. 주상절리의 형태는 단면 모양이 육각, 오각, 사각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주상절리의 단면은 다각형 형태이나, 본 작품에서는 사각의 형태로 단순화시켰으며 화산재가 용결하여 굳어진 응회암과 화산쇄설물의 이미지를 장식하여 변화를 주었다.

작품 표면을 돌로 찍어 현무암의 질감을 나타내었으며, 전 부분은 젖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뜯어내고 조각하여 현무암이 자연스럽게 깨어져 나간 듯한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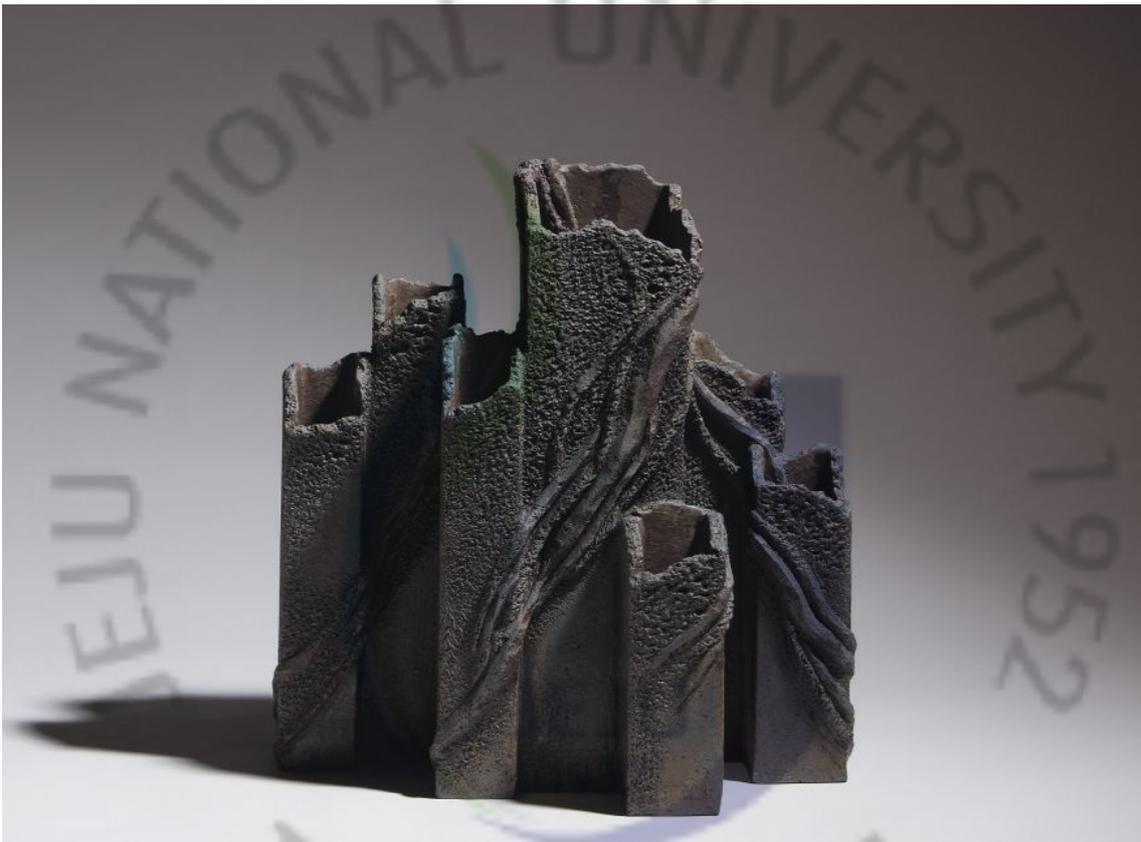
본 작품에서 색조의 표현은 암석이 검은 현무암이지만 오랜 세월 풍화되고 이끼가 끼어 푸른 색조로 변한 듯한 신비감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형태는 두 덩어리의 화기로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하여 조형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여 제작하였으며 실내에서 인테리어적 기능성을 갖도록 하였다.

소지는 강도가 강하고 입자가 굵은 조형토를 사용하였으며, 판성형 기법으로 판을 적당히 건조시킨 후에 크기와 높이를 다르게 하여 사각 기둥으로 제작하였으며 서로 다른 사각 기둥을 붙여 하나의 화기 형태로 완성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또 하나의 화기를 만든 후 두 덩어리의 화기가 서로 어우러져 하나의 조형물이 되도록 하였다.

유약은 800℃에서 1차 소성한 후에 흑유를 적당량 바르고 스폰지로 닦아내었다. 작품 안쪽에는 아연 망간유로 처리하였고, 바깥면은 소금물을 바른 후 잿물로 분무 시유하여, 1250℃로 환원염 소성하였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코발트 매트유를 분무 시유한 후 1250℃에서 3차 산화염 소성을 하였다.



작품1. 화산암 이미지 I 30×40×35(H)cm

조형토, 흑유, 소금물, 코발트매트유, 찻물

작품2. 화산암 이미지 II

제주 응회암의 대표적인 암석군인 고산 수월봉의 응회암 구조와 사계 용머리층의 응회암 구조를 접목시켜 제작한 작품이다.

웅장하고 거대한 응회암층인 수월봉과 용머리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압도적인 느낌을 주는데 화산재, 부석, 암재들이 퇴적되면서 용결되어 있어 다양한 질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랜 세월 풍화되어 무른 암석은 떨어져 나가고 단단한 암석만 남아 있음으로서 그 조형성이 매우 뛰어나고 자연의 신비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응회암의 이미지를 재구성하여, 응회암과 현무암의 이미지를 조화롭게 배치시켜 새로운 형태의 기법으로 수반형 화기를 제작하였다.

본 작품은 가로 72 cm와 세로 52cm 의 비교적 큰 이중기로 된 수반으로서 작품 제작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화산암에서 보여지는 무겁고 딱딱한 느낌을 최소화시켜 실내에 자연을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간혹 꽃을 띄어 분위기 연출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파티용 대형 화기로서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소지는 조형 작업에 적당한 조형토를 사용하였으며 이중기 작업으로 안과 밖의 형태를 동시에 쌓아 올라가는 성형기법으로 사용하였다. 점토의 성질상 한꺼번에 많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시간을 두고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적당히 건조되었을 때 조각을 하여 응회암의 질감을 표현하였다.

유약은 800℃에서 1차 소성한 후에 적당량의 흑유를 바른 후 스폰지로 닦아내어 현무암 이미지가 주는 특유의 기공 변화를 장식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시노유로 분무 시유하여 부드러운 갈색조의 색상으로 발색시킴으로서 암석의 딱딱하고 무거운 느낌을 해소할 수 있었다. 1250℃에서 환원염 소성을 하였다.



작품2. 화산암 이미지 II 72×52×40(H)cm

갈색조형토. 흑유, 시노유

작품3. 화산암 이미지 III

고산 수월봉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하고 응회암층의 구조를 변형시켜 재구성한 변형화기이다. 본 작품에서는 화산재와 화산쇄설물들이 서로 용결하여 퇴적된 응회암층의 동적이며 부드러운 선들의 흐름을 살려서 자유롭게 변형시켜 표현해 보았다.

전체적인 형태는 부드러운 선의 흐름으로 암석의 무겁고 딱딱한 느낌을 지양하였으며 현무암의 질감을 더함으로써 제주적 정취가 반영된 화기로서의 실용성과 함께 장식품으로서의 조형성도 부각시켰다.

제작 방법은 사각의 형태로 하단 부분을 만든 후 말아 올리기 기법을 사용하여 단계적으로 쌓아 올라갔으며 점토가 적당히 건조되었을 때 주로 조각칼을 사용하여 암석층의 변화를 표현하였다.

소지는 강도가 강하고 입자가 굵은 조형토를 사용하였다.

유약은 800℃에서 1차 소성한 후에 적당량의 흑유를 바르고 스폰지로 부드럽게 닦아내었다. 코발트 안료를 사용하여 포인트 부분을 강하게 발색시킴으로서 밝은 느낌의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시노유를 분무 시유하여 부드럽고 향토적인 갈색조를 이루도록 하였으며, 1250℃에서 환원염 소성을 하였다.



작품3. 화산암 이미지 III 33×18×35(H)cm

갈색조형토. 시노유, 흑유, 안료(코발트)

작품4. 화산암 이미지 IV

본 작품은 화산이 폭발할 때 마그마가 공중으로 분출하면서 굳어져 생긴 화산탄의 이미지를 모티브를 바탕으로 제작한 변형된 수반형 화기이다.

화기의 형태는 화산탄의 형상을 기능에 맞게 디자인하고 기공이 있는 현무암과 화산재가 용결하여 퇴적된 응회암층의 특징적인 부분만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풍화되고 이끼 낀 암석의 신비로운 색상을 표현하는데 주력하였다.

점토판을 여러 겹 겹쳐 전체적인 틀을 성형한 후에 적당히 건조되었을 때 조각하여 암석층의 질감을 표현하였으며, 반복되는 선과 푸른 색상으로 표현함으로써 물에 잠긴 응회암층을 느끼게 하는 조형물로서의 장식적 효과를 갖도록 하였다.

소지는 강도가 강하고 입자가 굵은 갈색 조형토를 사용하였다.

유약은 800℃에서 1차 소성한 후에 흑유를 적당량 발라서 스폰지로 부드럽게 닦아내었다. 크롬, 레드아트, 코발트안료를 사용하여 신비롭고 부드러운 청갈색의 느낌을 표현하고자 부분적으로 채색을 하였다. 2차 소성은 백매트를 분무 시유하여 1250℃에서 환원염 소성을 하였다.



작품4. 화산암 이미지 IV 38×24×30(H)cm

조형도, 흑유, 백매트, 안료(코발트, 크롬, 레드아트)

작품5. 화산암 이미지 V

본 작품은 주상절리 형상의 이미지와 응회암층의 이미지를 접목시킨 화기이다. 화기의 전체적인 느낌은 주상절리 해안가의 암석 위에 사각주 화산암이 세워져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주상절리는 화산이 폭발하여 용암이 흐르다가 표면이 냉각되면서 수축이 일어나 기둥 모양의 절리가 형성된 암석으로서 단면의 모양은 육각, 오각, 사각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본 작품은 단면의 모양을 단순화시켜 사각으로 통일 하였으며, 실용성을 강조하여 큰 화기 2개를 분리시키고, 나머지 화기는 고정시켜 작품의 안정감을 고려하였다.

작품 상단의 주상절리 느낌의 화기들은 판성형 기법으로 제작하였으며 점토가 적당히 건조되었을 때 손으로 뜯어내는 기법으로 질감을 살려 화산암이 떨어져 나간 분위기로 표현하였다. 작품의 하단은 해안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응회암 덩어리의 형상으로서 용암이 흘러내린 동적인 느낌과 기공이 많은 현무암의 질감을 접목시켜 조각하였으며 속파기 성형기법을 사용하였다.

소지는 강도가 강한 조형토를 사용하였다.

유약은 800℃에서 1차 소성을 한 후에 흑유를 적당량 바르고 스폰지로 닦아내었다. 상단의 화기는 코발트유로 포인트를 주고 시노유를 분무 시유하여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을 주었으며, 작품 하단은 소금물을 적당히 바른 후에 시노유를 분무 시유하여 차분한 느낌을 주었고 1250℃에서 환원염 소성을 하였다.



작품5. 화산암 이미지 V 60×28×35(H)cm

조형토. 흑유, 시노유, 안료(코발트)

작품6. 화산암 이미지 VI

본 작품은 응회암층의 형태에 많은 변화를 주어 실용성보다는 조형성을 강조한 화기이다. 사각형의 주상절리형 암석을 높히고 세워서 현대적으로 구성하였으며, 복잡한 새끼줄구조인 현무암의 이미지를 접목하여 확실적인 화산암 이미지의 딱딱함과 무거움을 변화있는 형태의 조형물로 변형시켜 작품의 장식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다.

상단에 고정된 화기 형태는 크고 작은 사각형의 주상절리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딱딱한 현무암의 질감을 간결하게 표현하여 암석의 무거운 느낌을 배제하였다.

표면 장식은 새끼줄 구조의 암석과 화산재가 용결하여 퇴적된 응회암의 이미지를 조화롭게 접목시킬 수 있도록 점토가 적당히 건조되었을 때 조각함으로써 용암이 흐르는 동적인 느낌의 질감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관성형 기법으로 화기 전체의 형태를 제작하였으며, 상단의 화기도 관성형 기법으로 제작하여 고정시켰다.

소지는 강도가 강하고 입자가 굵은 갈색 조형토를 사용하였다.

유약은 800℃에서 1차 소성을 한 후에 흑유를 적당량 바르고 스폰지로 닦아내었다. 백매트를 분무 시유하여 1250℃에서 2차 환원염 소성을 하였고 화산암의 딱딱함과 무거운 이미지를 탈피하여 파스텔톤의 따뜻한 느낌의 색조를 내기 위해 코발트 매트유와 잿물을 분무 시유하여 1250℃에서 3차 환원염 소성을 하였다.



작품6. 화산암 이미지 VI 65×28×30(H)cm

조형도. 흑유, 소금물, 백매트, 젓물

작품7. 화산암 이미지 VIII

본 작품은 제주화산암의 대표적 암석인 현무암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한 오브제적 화기이다.

제주 각 처에서 흔히 보여지는 현무암은 화산 폭발로 인하여 높은 온도에서 급히 식으면서 굳어졌기 때문에 그 입자가 치밀하고 검은색과 회흑색을 띄고 있으며 많은 기공을 포함하고 있다. 본 작품은 기공 변화가 많은 현무암이 용결하여 응회암 층에 퇴적되어 있는 듯한 특징적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현무암의 크고 작은 크기의 형태를 적당히 조화롭게 구성하였다.

현무암의 기공과 유사하게 다양한 크기로 구멍을 뚫어 마른 소재나 야생화를 꽂을 수 있도록 하여 작품에 자연미를 더 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고, 현무암의 형태를 새의 형상으로 접목시켜서 조형적 구성을 하였다.

현무암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찍거나 뜯어내는 조각 기법과 속파기 기법으로 형태를 완성시켜 화산암의 질감을 나타내었다.

소지는 강도가 강하고 입자가 굵은 갈색 조형토를 사용하였다.

유약은 800℃에서 1차 소성을 한 후에 흑유를 적당량 바르고 스폰지로 닦아내었다. 다양한 색조를 나타내기 위하여 크롬, 레드아트, 코발트 안료를 사용하였고, 오랜 세월동안 풍화작용과 침식작용으로 인하여 변화된 암석의 색상을 표현하고자 백매트를 분무 시유하여 1250℃에서 2차 환원염 소성을 하였다.



작품7. 화산암 이미지 VII 60×30×45(H)cm

조형토. 흑유, 백매트, 안료(코발트, 크롬, 레드아트)

V. 결 론

인간은 자연과 많은 교감을 나누며, 자연이 주는 예술적 요소에서 창조적 영감을 얻게 된다. 또한, 자연에서 얻어지는 정서적 안정감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지친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치유하는 효과를 갖게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의 자연이 주는 다양한 미적 요소 중에서 제주 화산암의 조형적 요소를 분석하고 재구성하여 화기 디자인에 응용함으로써 꽃을 장식하는 화기의 기능적 측면만이 아니라 실내 공간에서 독특한 제주의 자연을 느끼고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조형물로서의 심미적 가치를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화기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화기의 역사적 변천을 고찰한 결과 우리의 선조들은 자연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소박하고 절제된 미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종교적 배경에 의한 생활양식 안에서도 꽃 문화를 즐겼고, 화기 또한 그 시대적 변천에 따라 다양하게 변천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제주 화산암의 종류 및 그 조형성을 탐구한 결과 화산암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형태와 독특한 조형적 특징들이 창작 활동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현무암의 기공과 질감, 응회암의 다양한 형태와 질감의 변화를 작품 제작에 접목시켜 표현한 결과 현무암의 크고 작은 기공 변화와 응회암의 다양한 질감들이 서로 조화롭게 매치되어 암석의 이미지를 갖는 특징적인 화기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작품 제작에 있어서 현무암의 크고 작은 기공 변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도구를 크기별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였고, 점토를 뜯어내고, 찍고, 누르는 작업을 반복하여 암석의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응회암의 거칠고 딱딱한 질감은 점토를 붙이고, 깎아 내고 조각함으로써 효과적인 암석 표현 방법을 체득할 수 있었다.

넷째, 화산암의 이미지와 색상을 얻기 위하여 안료를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번의 소성과정을 거침으로써 부드럽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면서 장식적 효과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자화기에 접목한 제주 화산암의 조형적 특성이 서로 조화로우며 수 있다는 면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화기의 실용성과 조형성을

새롭게 모색함으로써 실내 공간에서 꽃 문화에 어울리는 조형적 작품을 제주의 독특한 풍광과 접목하여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창작 활동에 더욱 정진하여 미약하나마 현대인들의 메마른 삶 속에서 한 점의 자연적 이미지를 실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정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참고 문헌】

- 고하수, 한국의 꽃 예술사 II, 하수출판사, 1993
- 김원용, 벽화(한국 미술전집 4권), 동화출판공사, 1974
- 김재열, 백자, 분청사기(Korean Art Book), 예경, 2000
- 김현식, 동아 원색 세계 대백과사전 3권, 동아출판사, 1988
- 윤 선, 정차연, 송시대, 현원학, 제주도의 지질, 한국농촌공사 제주도본부, 2006
- 임두빈, 한국의 민화, 서문당, 1993
- 임순우, 고려도자(한국 미술전집 9권), 동화출판공사, 1974
- 정양모, 분청사기, 백자(국보8), 예경산업사, 1984
- 진홍섭, 토기, 토우, 와전(한국 미술전집 3권), 동화출판공사, 1974
- 진홍섭, 공예(국보5), 웅진출판주식회사, 1992
- 하수희, 한국 꽃꽂이 역사 자료 연구 1집, 하수출판사, 1987
- 황수로, 한국 꽃 예술 문화사, 삼성출판사, 1988

【참고 논문】

- 김은주, 조형성이 강조된 도제 화기 제작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1997
- 박노경, 식물의 이미지를 반영한 화기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1990
- 양상일, 제주도 응회구층의 분포와 특성 제43회 제주도 과학전람회, 1997
- 유정희, 도제화기 제작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1999
- 윤 진, 도제 화기 제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3
- 이경아, 도제 화기 디자인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예술 디자인 대학원, 2002
- 이희정, 한국의 야생화 이미지를 형상화한 화기 디자인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3
- 허민자, 도예를 통한 제주도 화산암의 조형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1993